

일주문



진각복지재단 알뜰바자회
진각복지재단 이사장 혜정 정사는 3월 12~16일 진각종 총인원 경내 주차장에서 알뜰바자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컵스카우트 창단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3월 18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불교스카우트 컵스카우트 창단식을 개최했다.



동화사 국제선체협관 개관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4월 1일 통일약사여래대불 참배단에서 국제선체협관 개관 행사를 개최한다.



금산사 합동수륙재
전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14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전북불교합동수륙재를 봉행한다. (063)548-4442



대흥사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16일 대흥사 일대에서 제18회 나라사랑 글쓰기·대회를 개최한다.



퇴휴스님, 중앙승가대 도서관 1000만원 전달
서울 범장사 주지 퇴휴 스님은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에 중앙승가대 도서관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문수사 삼불 불안 정안법회
문경 문수사 주지 법천 스님은 4월 1일 태고종 경복교구종무원 덕운 스님 초청 미륵존불·해수관음·지장보살 석불 봉불 정안 법회를 봉행한다.



경제인불자聯, 지승동 회장 취임
지승동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제2대 회장은 3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인사> 최용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추대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3월 19일 보문학원 이사회의에서 보문학원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2013년 3월 10일 까지이다.

불교 응용분야 연구 손 잡다

협약 맺는 불교심리연구원 윤희조 원장과 밝은사람들연구소 박찬욱 소장



윤희조 불교와심리연구원 원장(사진 좌)과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이 협약에 앞서 불교 응용분야 연구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심리와 상담 분야에서 불교의 현대적 이해와 적용에 대해 고민해 온 두 연구 기관이 향후 학술연찬회를 비롯한 학술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가 3월 13일 맺은 협력협약이 그 것이다. 두 기관은 밝은사람들연구소가 단독으로 10차례 개최해 온 학술연찬회를 공동 개최하고,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학 분야 인력풀 공유 등 연구를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5년 설립된 불교와심리연구원은 불교심리학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학술지 '불교와 심리'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6년 문을 연 밝은사람들연구소는 학술연찬회를 통해 불교학과 대중의 소통을 이끌어오고 있다.

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1차 학술연찬회는 '믿음'을 주제로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인장에서 열린다.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초기불교), 석길암 금강대 HK교수(대승불교),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선불교),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비교종교), 권명수 한국신학대 교수(심리학) 등이 참여한다. 또 학술연찬회에 앞서 4월 28~29일에는 문경 용성선원에서 패널 전원이 참여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두 기관의 대표 윤희조 불교와심리연구원 원장과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을 만나 불교 심리와 상담 분야의 발전 방향과 학술교류에 대해 들어보았다.

Q :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연구 협력을 공유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협약의 계기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박찬욱 소장: 윤희조 원장과는 제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기 학생으로 있으면서부터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를 운영하며 학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개인적인 공감대와 함께 이 분야에 학제 등이 완비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학술회의 진행 예정 연구풀 공유 시너지 기대

윤희조 원장: 서불대는 내년 10년을 맞이합니다. 서불대에는 전공과목이 있어 불교 상담, 불교심리 등 다양한 응용분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밝은사람들연구소 또한 학술연찬회가 10회 차를 넘어섰습니다. 연구 분야와 대중화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최근 상담, 심리, 명상 등 불교와 접할 수 있는 분야에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조 원장: GNP가 2만 달러가 넘어서면 상담과 심리 분야에 눈이 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명상단체, 심리 연구기관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

습니다. 불교계에도 스님들의 주도 하에 선원에서 명상 심리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활발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각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 이 분야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박찬욱 소장: 동국대에서 진행 중인 불교심리상담 강좌가 교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불교' 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에 맞게 어려운 불교용어를 최소화 하며 삶 속에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불교 응용 분야에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둘 것인가요?

박찬욱 소장: 가장 먼저 학술연찬회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원고 청탁 등으로 섭외하고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좌장을 팀장으로 여러 팀을 구성해 종합토론이 보다 원활하게 됐습니다. 서불대와 진행하는 이번 연찬회는 강단을 없애고 프리젠테이션과 집중토론 등 주제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희조 원장: 4월 28~29일 문경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발제문을 가지고 미리 워크숍을 하며 학자들 간에 교류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차별화점인가요?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진각종 총인원 일주문 이전 '지진불사'

진각종(총리원장 혜정 정사)은 3월 19일 총인원 일주문 이전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불사는 오불봉정 및 정공을 시작으로 발원강도, 오대서원, 유가삼밀, 천지팔양신주경봉독, 시토 순으로 진행됐다.

총리원장 혜정 정사는 "총인원 일주문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일주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혜정 정사는 "길은 도라고 하여 길이 바로 서면 정도가 바로 서는 것"이라며 "오늘 이 일주문 이전 지진불사가 진각종의 정도가 바로서는 초석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무의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이 공사가 원만히 성취돼 이 길

목을 지나는 모두가 미혹과 번뇌를 벗어나고 심인을 밝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발원한다"며 "종단이 뜻을 세우고 종도가 받들어 이루어지는 일주문 이전을 통해 총인원이 일체중생의 삼독을 다스리고 청정한 신심을 복돋우는 거룩한 수행의 터전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진각종은 진각문화전승원 완공에 맞춰 일주문을 예전의 자리로 되돌려 놓게 된다.

지진불사에는 성초 총인예하를 비롯한 원로스승 일경 종사, 지해심 전수과 총리원장 혜정 정사, 진각대학원장 겸 재무·건설부장 수성 정사, 서울교구청장 겸 총무부장 무의 정사, 교육부장 관천 정사, 서울교구 스승 및 총무원들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 비구니 수행관 '사라림' 개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비구니 학인스님들을 위한 수행관이 마련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는 3월 17일 비구니 수행관 '사라림' 개관식을 개최했다.

김영중 경주캠퍼스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라림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인스님들의 수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법인사무처장 종민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사라림 건립은 비구니 학인스님들이 용맹정진할 수 있는 수행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학문과 수행의 두 날개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립동문화 회장 영담 스님은 축사에서 "학인스님들이 사라림에서 수행 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축사에서 "한국불교 미래가 비구니 스님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비구니 학인스님들을 격려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내에 신축된 사라림은 비구니스님들의 건학이념 구현과 수행정진을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415평 규모로 건립됐다. 사라림에는 60여 스님들이 거주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운암 김성숙 43주기 추모제 4월 12일 봉행

상해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던 태허 스님, 운암 김성숙 선생의 서거 43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봉행된다.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는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에서 추모제를 봉행한다. 추모제는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추모헌정, 조종발사, 묘소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운암사업회는 "올해로 탄신 115주년을 맞는 운암 선생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에 많은 이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일제 치하 당시 남양주 봉선사로 출가했던 태허 스님으로, 만해 스님 등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지내며 항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펼쳤다. 1969년 별세했다.

한편, 운암사업회는 3·1절을 앞두고 1964년 태허 스님이 쓴 <혁명일기>를 책으로 발간한 바 있다. (02)391-9100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Sunmudo featuring a Buddha statue and martial arts performance. Text includes: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주변 성지: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선무도공연,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제1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Advertisement for Buddhist education. Text includes: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제 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실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선착순) ◆원서접수: 2012년 3월중, ◆개강일시: 2012년 3월 개강. 매주(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